제 88호 현명한 (WISE) 목표 세우기

지난 호에는 스마트(SMART)한 목표 세우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운들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. 따라서 목표를 세우실 적에 현명함(WISE)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생각해 보십시오.

W (willpower)
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. 외부에서 급하다고 하면서 밀어 부치는 일에 쫓기다 보면 스스로 세운 목표는 뒤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. 우리는 남이 세워 준 목표 달성하기에 급급하면서 "이 일은 '꼭 해야만 하는 일'이니까"라며 자신을 위로합니다. 그러나 "꼭 해야 하는 일"이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? 남이 하라는 일만 하다보면 진정 자신에게 소중한 일, '꼭 하고 싶은 일'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. 따라서, 이번 학기초에 세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결심이 따라줘야 합니다.

I (initiative)
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. 시간 여유가 날 때, 마음이 안정 될 때, 주위가 조용할 때 등을 기다리시다 보면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. 가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까봐, 또는 욕심껏 달성하지 못할까봐, 즉 실패하기가 두려워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. 하지만 만약 선정하신 목표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교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야 하고, 마음을 가다듬고,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.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"근사한"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. 가장 평범한 방법을 선택하면 잘 해보았자 평범한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. "근사한" 결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비범한 방법을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. 나이키 선전문구에서 나오듯이, "just do it!"

S (stamina)
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. 한꺼번에 다 이루겠다는 욕심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한번에 한발자국씩 옮겨야 합니다. 사람 키보다 세 배 높은 담장을 넘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. 그러나 홍길동 흉내를 내어 한번에 뛰어 넘으려고 하면 헛수고일 뿐입니다. 사다리를 찾아서 담장에 걸쳐놓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사람은 해낼 수 있습니다. 큰일을 이루는 사람은 일을 잘게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. 스태미너는 씨름 선수처럼 단 번에 넘어뜨리는 힘이 아니라 일을 완수할 때까지 참아내는 지속적인 힘을 뜻합니다.

E (enthusiasm)
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바에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. 열정이 없이 하는 일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. 어떤 일을 하는데 열정 없이 한다면 일이 잘 안 될 이유가 백 가지나 떠오를 것입니다. 반대로 꼭 하고 싶은

의욕이 있다면 "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으로" 하는 적극성이 따르게 됩니다. 따라서 목표를 세우시기 전에 "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인가?"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새 학기에는 교수님들께서 항상 맘에 두고 계셨던 (중요한) 일 한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해야하는 일만 하시다 보면 쉽게 지쳐버립니다. 하고싶은 일을 하시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. 에너지가 생기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

ⓒ **조벽**, 2000